

# 마음은 어떻게 나고 멸하는가



##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미세한 생각과 거친 생각은 모두 마음의 생멸을 말하는 것이다. 이 생멸심이 결국 의(意)가 되어 상속(相續)되는 것이라고 본문에서 밝혔다. 여기에서 하나의 의문을 제기한다. 생멸이란 생겼다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마음이 생멸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상속되며 상속되는 것이라면 어떻게 없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답을 본문에서 생멸한다는 것은 심상(心相)이 생멸한다는 것이고 심체(心體)가 생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마치 바다에 파도가 일 때 파도는 생겼다 없어지지만 바다의 물은 그대로라는 비유를 하였다. 심상(心相)이란 마음에 생각이 일어난 상태를 두고 말한 것이다. 무명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심상이요, 진여 자체가 심체이다. 마음을 오염시키는 것이 무명이고 본래의 청정 그대로 가진 것이다.

그런데 무명과 진여가 서로 혼승을 하는 이치를 밝히면서 네 가지 혼승을 설명한다. 이 네 가지 혼승에 의하여 염법(染

法)과 정법(淨法) 일어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혼승(薰習)이란 예를 들어 말하면 사람이 입은 옷에 본래 향냄새가 없었으나 향의 냄새가 스며들면 옷에 배어 향냄새가 나게 된다. 이 경우 옷이 향에 혼승되었다고 말한다. 진여인 청정한 법은 본래 오염된 것이 아니었으나 무명에 혼승이 되어 오염된 상태가 된다. 반면에 오염된 법 곧 무

명(無明)에 혼승돼 오염된 상태된다

명은 실로 청정한 것이 없지만 진여가 혼승했기 때문에 청정한 작용이 있게 된다. 네 가지 혼승이란 첫째 정법혼승으로 이는 진여가 무명에 혼승하는 것이다. 둘째는 무명혼승으로 염법의 원인인 무명이 진여를 혼승하는 것이다. 셋째는 망심혼승으로 진여가 무명에 의해 혼승이 되면 망심이 되어 이 망심에 의해 다시 혼승이

일어나는데 이는 업식(業識)에서 혼승이 되는 것이다. 넷째는 망경계 혼승으로 육진(六塵)이 혼승하는 것을 말한다. 본문에서는 다시 네 가지 혼승의 뜻을 요약해 설명한다.

“진여의 법, 곧 ‘참되고 한결같은 본래의 법’에 의하여 무명이 있고 이 무명이 물들이는 오염의 원인이 되어 진여를 혼승한다. 그리하여 망령된 생각 곧 주관적으로 사유하는 업식을 나타내게 하고 이것이 다시 무명에 혼승을 가한다. 그 결과 진여의 마음 그 자체를 깨닫지 못하므로 여러러는 생각들이 일어나 잘못 의식되어진 객관세계에 잡다한 현상을 출현시키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그릇 의식되어진 객관 대상세계의 잡다한 현상들이 어떤 계기가 되어 혼승이 또 일어나며, 다시 허망한 생각들을 하게 되고 집착이 생겨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을 저지르게 된다. 그리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결국 중생이 괴로움을 받는 제일 큰 원인이 무명에서 시작되어 마음이 물들어서 오염된 상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수행의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염법이 혼승하는 무명혼승, 망심혼승, 망경계혼승이다. 이 세 가지 혼승이 각각 두 가지씩의 혼승을 다시 가지고 있다고

본문에서는 밝히고 있다.

잘못 의식되어진 대상세계(妄境界)가 일으키는 혼승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망념을 증대시키는 혼승(增長念薰習)이요, 또 하나는 집착을 증대시키는 혼승(增長取薰習)이다. 이는 아집과 법집을 증대시키는 혼승으로 육추(六 取)의 지상·상속상은 아집을 이루며 집취상·계명자상은 법집을 이룬다. 다음 주관적인 생각이 일으키는 혼승(妄心薰習)에도 두 가지가 있다. 가장 근본적인 업식의 혼승(業識根本薰習)이 있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아라한이나 연가, 보살들이 생멸하는 고통을 받고, 또 사물을 분별하는 식을 증대시키는 혼승(增長分別事識薰習)이 있어 이로 인해 범부들이 좋지 않은 일을 하고 그 결과 고통을 받게 된다. 무명이 일으키는 혼승에도 또한 두 가지가 있다. 업식을 형성하는 근본혼승(根本薰習)과 그릇된 소견으로 애착을 일으키는 견애혼승(見愛薰習)이다. 이것은 잡다한 사건들을 분별하는 식을 낳는다.

이상의 두 가지씩 설명된 혼승들은 모두 좋지 않은 방향으로 오염되어 내려오는 유전(流轉)의 과정을 설명한다. 다시 말하면 중생들이 각(覺)을 등지고 업을 지어 고통을 받게 되는 염연기(染緣起)의 진행이다.



##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 참사람으로

비우면 편안하다. 내려놓으면 가뿐하다. 털면 가벼워지고 나누면 행복하다.

기본이 튼튼하면 흔들림이 줄고 상식이 통하면 험악함이 사라진다. 감추고 드러낼 일 없으면 자유가 깃들고 꾸미고 조작함이 사라지면 평화와 행복을 누리게 된다. 그런데도 혼자이면서 여럿처럼 살아 분주해지고 흠수이면서 짝수를 그리 위해 윤희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부모 형제도 마다하고 출가(出家)한 수행승라면 몸과 마음도 개운하게 가벼우게 살 일이다. 명예를 앞세울 일도 아니요, 모으고 챙기려는 속물 근성에서도 자유로워야 할 것이다. 노후대책은 비상금이 아닌 수행력이 기본이 되어야 하고 떳떳하고 당당한 일이 아니면 비껴 가야 할 일이다.

여러 가지될 수 있겠으나 평등성의 실천과 구현은 큰 법당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 살아생전에 석가모니 부처님 스스로가 길상초를 깔아 잡자리를 만드셨을 뿐 대중들의 시중을 받거나 대접 받는 일은 아예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스님들의 생일상 차림에 대해서도. 부모형제도 마다하고 세속의 애착도 저버린 수행하는 스님이라면 당연히 생일쯤은 잊고 살아야 마땅하고 당연하다. 그런데 주지 스님일 경우 해마다 생일상 차림의 잔치 아닌 잔치가 벌어진다 면 이는 웃지 못할 풍경의 잘못된 관습임이 분명하다. 진정으로 생일을 받고 싶다면 그 스님을 낳고 길러주신 세속에 계신 부모님 이지 출가수행승의 차이는 아닐 것이다.

주지가 원해서가 아니라 신도들이 또는 제자들이 알아서 차려주는 것이라며 비굴하게 비껴서지 말 일

## 수행자의 노후 대책은 오직 수행력뿐 비우면 편안하고 내려놓으면 가뿐하다

부처는 깨달은 사람이다. 수행자는 참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낮과 밤의 생활이 항상 오픈될 수 있도록 열린 자유와 평등정신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진해야 수행자이다.

우선은 승가 공동체에서 대접받는 문화부터 살펴 고쳐나갈 일이다. 신도들이 스님을 만나면 의례상 당연하게 큰절을 3번하는 것을 1번으로, 그것도 맞절하는 문화로 바꿔나가야 한다.

존중과 존경은 형식에서 자유로울 때 믿음과 신뢰가 깊어지기 때문이다.

사르나트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에 의해 다섯 비구가 차례로 깨달음을 성취해 부처님이 되었을 때에도 우월과 열등이 없는 절 대평등이 있음을 병심하고 명심할 일이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 큰 사찰이던 작은 사찰이던 대웅전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인데, 왜 주지스님의 전용방식은 크기와 색깔이 다른지 승가의 대접문화에 대해 깊은 회의에 몰음표를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변명도

이다. 승려인 본인이 생일을 잊고 사는데, 신도들이 도반들이 제자들이 챙겨줄지 모르겠는가?

다음은 스승과 제자로 맺어지는 상좌문화에 대해서도. 한 스님 밑에 상좌로 일컬어지는 제자가 10명이 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물론 수행력이 깊고 덕이 넓어 물려오는 희망자를 거절할 수 없는 경우도 더러는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화를 통해 설득도 하고 다른 도반스님도 소개해 그 숫자를 줄이는 것이 수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 덕목이다. 기본이 튼튼하고 상식이 통하는 스님이라면 제자 욕심을 부리는 것은 아닐 것이다. 어떤 고승(高僧)의 경우, 서울대 출신만을 골라 제자로 맞이하는 해프닝도 살아 있는 전설로 남아있다. 이는 지극히 잘못된 선택이 아닐 수 없었다.

비우면 채워진다. 텅 빈 찬란처럼. 고요하면 즐겁다. 적멸위락(寂滅爲樂)처럼, 수행자라면 비우고 버리며 개운하게 살 일이다.

부끄러운 일을 줄여가며 떳떳하고 당당하게 오늘의 참주인공, 참사람으로 살 일이다.

# 부처님 찾는 사람의 보시는 맛나다



##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② 보시의 수승함

施勝味品第二 (시승미품제2)  
大悲所起施 意願成菩提  
(대비소기시 의원성보리)  
如是知見人 能成一切施  
(여시지견인 능성일체시)  
如是一切施 終成一味智  
(여시일체시 종성일미지)  
大悲心為體 能起種種施  
(대비심위체 능기종종시)  
種種救為生 得到於智處  
(대비심위체 능기종종시)  
能除諸愛結 及以無明垢  
(능제제애결 급이무명구)  
能令一切眾 悉皆得安樂  
(능령일체중 실개득안락)  
如是悲心施 誰不生愛樂  
(여시비심시 수불생애락)  
大悲心所起 功德之施利  
大慈心所起 功德之施利

(대비심소기 공덕지시리)  
不能生愛樂 背離於救濟  
(불능생애락 배리어구제)  
是人為愛繫 菩提甚難得  
(시인위애계 보리심난득)  
諸欲求佛者 愛樂施甘味  
(제욕구불자 애락시감미)

번역  
보시의 수승한 맛에 대한 품 제2  
큰 자비를 일으켜 보시하는 것은 마음에 보리심을 이루도록 서원하게 하나니, 이와 같은 맑고 견해를 지닌 사람이라야 능히 일체의 보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체의 보시는 끝내 한 맛의 지혜를 이루거나, 큰 자비심을 근본 바탕으로 삼기에 능히 가지가지 보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지가지로 중생을 구제하면 지혜에 도달할 수 있거니와, 모든 애착의 결박과 무명(無明)의 번뇌까지 능히 없앨 수 있습니다.

능히 일체의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다 안락함을 얻게 할 수 있게 하리라는 이와 같은 자비심의 보시라면 누가 애착과 쾌락을 일으키겠는지요.

큰 자비심을 일으킨 공덕으로 행하는 보시의 이로운능 능히 애착과 쾌락이 생기지 않게 하며 거기서 구제하여 떠나게 합니다.

사람이 애착에 얽매이면 보리를 얻기가 심히 어렵지만, 부처님을 찾고자 하는 이들의 사랑스럽고 즐거운 보시는 달고도 맛납니다.

해설  
<대장부론>의 제 2품은 '보시의 수승한 맛'에 대한 법문이다. 2품에 들어와 공덕 증을 자아내게 하는 가르침이 있다. 지혜란 과연 무엇인가에 보시를 통해서 지혜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가 하는 점이다. 불교에서 지혜란 무명(無明)의 없음을

무명은 온갖 번뇌의 뿌리이자 번뇌의 생산, 재생산을 초래하는 원인이다. <연기경>을 통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명이 곧 자아와 자아에 대한 애착과 다름 아니다. 그 애착을 통해 여러러움과 온갖 선법과 시기, 질투, 싸움 등이 발생한다. 인간이 인간성을 상실하기에 이른다. 이런 괴로움과 번뇌는 또 다른 괴로움과 번뇌를 양산하고야 만다. 그러고 보면 무명이라는 병에 가장 특효약이 바로 보시가 된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제바보살은 본문을 통해 말한다. '큰 자비심을 일으킨 공덕으로 행하는 보시의 이로운능 능히 애착과 쾌락이 생기지 않게 하며 거기서 구제하여 떠나게 합니다' 라고.

2품의 제목인 '수승(殊勝)한 맛'이라는 의미는 '많은 것 가운데서 가장 훌륭하다'는 말이다. 부처님의 법 가운데 가장 수승한 맛을 지닌 보시는 자비심을 바탕으로 해서 생긴다고 말한다.

자비의 보시가 바로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이며, 한 맛의 지혜다. 부처님의 평생 설법도 중생을 향한 법의 보시였다.

# 사단법인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 종정 법운

### 제10기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16년도 초급·중급·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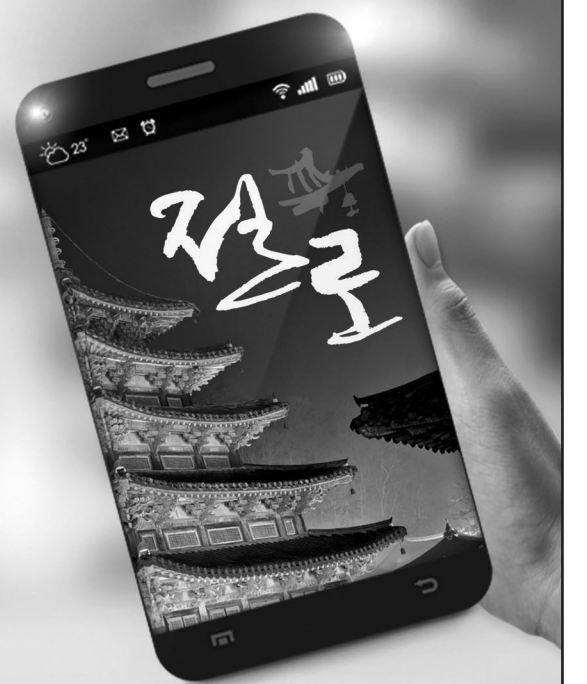
- 교육기간 및 과정
  -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서, 종승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묵탁
  -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육, 윤희계 (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사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응명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불송편
  -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 사다리나바라, 회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 유원송,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홍사미운, 홍시명반, 정민익식, 시더림(대배), 예수재의식 등
- 강 주 : 석범은 스님
- 개 강 ■ 2016년 4월 7일 목요일 / 매주 목요일 (수시모집)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중급·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 입학자격 : 종단과 승·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 (교재비별도)
- 입학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충무원에서 교부)
- 계좌입금처 : 경북 칠곡군 악목면 북성리 9길 28 (북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충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 접수기간 : 상시모집
- 문의처 : 010-3544-2605 TEL 054) 974-2605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불자와 사찰간의 다양한 소식, 뉴스, 혜택 등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 절로

사찰의 다양한 소식을 절로에서 받아보세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다운로드

Google Play (안드로이드용)

App Store (아이폰용)

“절로” 검색 후 다운로드

절로 문의전화

불자/신도 무료이용 사찰/단체 이용문의

1644 - 9108

